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0~7/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천태소지관	천태대사/윤현로	운주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3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4	요가 디피카	B.K.S.이행가/현천스님	선요가
5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월호스님	조계종출판사
6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7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당선작)	법보신문 편집부	모과나무
8	사찰의 비밀 (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담앤북스
9	보살핌의 경제학	달라이 라마 외	나무의마음
10	새롭게 열린다 붓다의 시대	김재영	동쪽나라

부엌에서 날마다 '禪' '觀'을 한다?



부엌에서 지중해를 보았다
이지형 지음/최청운 그림/디오네 펴냄/1만 3천원



〈금강경〉 메시지에 공감해 요리 시작
음식 이야기에 감성 더한 '푸드 에세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적어도 10년 전만 해도 부엌은 한국 남자들에게 익숙지 않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TV 방송서나 일반 가정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남자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본다. 바야흐로 부엌은 이제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조금은(?) 평등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부엌에서 지중해를 보았다〉의 저자 이지형은 푸드칼럼니스트이다.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처럼 그의 일상도 비슷했다. 직장서 일하고, 일과 후에는 사람들과 술 한 잔 걸치고, 주말이면 소파서 피곤함을 달래고 TV와 친구하고 등등. 그랬던 그가 어느 날 TV를 끄고 거실 소파를 떠나, 식탁을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이 제자 1250명과 함께 있다가 밥때가 되자 제자들을 이끌고 발우를 든 채 성으로 들어가 밥을 얻었다. 그리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밥을 먹었다. 옷과 발우를 거둔 후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니……."

바로 〈금강경〉 때문이었다. 저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진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곳이 밥 먹고 설거지하는 일상"이라는 〈금강경〉의 메시지에 공감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부엌에 들어가 한 손에 식재료, 한 손에 칼을 들고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음식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일상이 되었고, 부엌은 저자에게 신비한 공간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알아차렸다. 부엌에서도 삶의 위로와 안락을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이제 일상서 기분이 가라앉을 땐 색이 고운 음식을 만든다. 거기서 끝났다면 이 책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조용히 살피고 찬찬히 맛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와 감성적 영감들을 적어 내려 갔다. 이 책은 그간의 결과물들을 한 권으로 모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일종의 '푸드 에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책 속에서 소개된 음식과 재료들서 느끼는 저자 특유의 감성적 조각들을 쭉 펼쳐 놓으면 어메리칸 퀼트처럼 형형 색색이다. 이 책에는 미역과 홍어, 도다리쑥국과 샐러드, 그리고 기타 등등의 요리와 음식(술도 포함)을 통해 달고 시고 쓰고 짠 우리네 삶과 세상을 여여히 관조하는 음식 이야기와 감성이 가득 담겨 있다. 저자가 찬찬히 관조하며 음식에 감성이란 양념을 가미했듯, 책을 읽다보면 감성의 과식에 빠져 책 제목처럼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부엌은 저자에게 음식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선 일종의 거처가 되었다. 그는 부엌을 통해 다른 세상서 느낄 수 있는 삶의 황홀함을 맛본다. 그래서 날도 채 밝지 않은 코발트 빛이 짙은 새벽, 밤새 인적 없던 적막한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저자는 깊은 산속을 헤매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슬 맞은 대나무 잎들 파르르 흔들리는, 단아한 숲의 끝자락에 자리한 산사(山寺)를 향해. 그곳에서 저자는 날마다 선(禪)을 맛본다. 칼과 도마와 냄비와 프라이팬을 차례로 바꿔 들고, 갖가지 식재료를 씻고 썰고 익히면서 세상을 관(觀)한다. 이 책은 그렇게 나온 요리 주변과 전후의 이야기들을 끌어 모은 것이다.

임성한 드라마 작가는 추천사를 통해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줄 안다고 한다.

이 책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극한 모성으로 아들에게 정성 음식을 만들어 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본받아,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양가 있는 아침을 차려 주고 출근하는 아빠의 속 깊은 사랑.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지고,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엄마의 밥상이 그리워지고 영혼이 위로되는 책이었다. 나에게는"이라고 밝혔다. 책 표지 만큼 글 내용도 예쁘다. 여기에 최청운의 감각적인 일러스트도 한 몫 한 것같다.

▲저자 **이지형** 푸드칼럼니스트는?

매일경제신문에 〈이지형의 식탁정담〉, 주간조선에 〈맛기행〉을 연재했다. 100쪽 남짓 분량의 주담(酒談) 〈소주 이야기〉를 썼다. 에세이집 〈주역, 나를 흔들다〉와 〈강호인문학〉, 〈끝에서 시작하다–시베리아에서 발트까지〉 등이 있다.

3.1운동 속 인물들 소설로… 법계문학상 수상작



푸른별의 노래
이종숙 지음/얘기꾼 펴냄/1만 3500원



"세상에는 큰 뜻을 품은 이름들이 많으나 그대에게는 벽성이 어울리지.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세운동에 나서 한쪽 팔을 바쳤고 개인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네. 평등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백정들도 도왔지. 그대가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네. 밤하늘에 빛나는 뭇별 중 왕성하게 빛나는 푸른 별과 같은 존재, 그대가 벽성일세"

벽성 스님은 용성 스님의 고향 후배로 두 스님은 어린 시절을 고향마을에서 함께 보냈다. 벽성은 용성 스님이 고향 후배를 자신의 상좌로 받아들이면서 내린 법명이다. 벽성은 은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태극기 그리는 일로 독립운동을 한다.

이 책은 1920년대서 194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교육운동가 김효인은 만세운동 과정에서 한쪽 팔을 잃고 방황하지만 친형제처럼 지낸 상규(용성 스님)를 만나 새롭게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강포한 일경의 총칼 아래서 태극기를 그리며 청년구국단을 이끌던 효인은 계를 받아 벽성(碧星)으로 다시 태어난다. 푸른 별이 된 그는 밀양에서 상경한 상좌 혜득과 백정의 아들 덕신, 소작농에서 도시 빈민으로 추락한 초옥과 희옥 등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유통점과 양행을 운영하는 구국단의 국내와 만주의 활동을 통해 민족의 나갈 길을 제시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제3회 법계문학상을 수상한 이종숙 작가〈사진〉의 첫 장편소설 〈푸른 별의 노래〉는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잊고 있던 역사의 현장과 잊힌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는 "소설을 쓰는 중에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간과 맞닥뜨렸다. 소설은 처음으로 돌아갔다. 고난의 역사를 견디며 살아온, 표나지 않지만,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 저항했던 평범한 사람들, 형평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또한 그 거대한 혁명 속 주인공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애썼다."고 고백한다.

남지심 소설가도 추천평을 통해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난 100년 후인 올해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소설로 조명한 최초의 작품인 〈푸른 별의 노래〉가 출간돼 의미가 깊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벽성 스님이다. 그는 은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태극기 그리는 일로 독립운동 하며 실제적으로 민초들을 지휘하는데, 책 속에서 제 각각 역할을 맡은 민초들의 독립운동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진다"며 "그러면서 불교계 전체의 독립운동이 주목을 받은 것처럼 넓게 조명된다.

이 소설의 무대는 한반도는 물론 만주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불교계가 독립운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의 전모를 알게 된다"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종숙**은?

1964년 경기도 용인서 태어나,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단편소설 〈모크샤〉가 〈불교문예〉 신인상에 당선되었다. 저서로는 인문학 여행기 〈오늘은 경주〉 가 있다.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